

LÉVY GORVY

뉴욕 레비고비 갤러리 디렉터에 유현이(Bona Yoo) 디렉터 선임



유현이 (Bona Yoo) 디렉터, 2018. 사진: 김재훈

미국 뉴욕 - 레비고비(Lévy Gorvy) 갤러리의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 공동대표는 2018년 11월 1일 뉴욕 갤러리의 디렉터에 유현이(Bona Yoo) 디렉터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뉴욕 리만머핀(Lehmann Maupin) 갤러리에서 재직한 바 있는 유현이 디렉터는 갤러리의 주요 전속작가는 물론 세계적인 컬렉터 및 미술 기관과 다년간 함께 일해왔다. 유 디렉터는 자신만의 다채로운 문화적 감성과 독창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리만머핀의 글로벌 성장전략 수립은 물론 세일즈 기반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또한 갤러리의 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에서의 프로그램과 시장 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리만머핀 서울의 개관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유 디렉터는 리만머핀 갤러리에 앞서 서울 국제갤러리의 세일즈 디렉터로 재직한 바 있으며 당시 쌓은 한국 단색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레비고비에서 또한 이승택 작가, 정상화 작가를 비롯한 전속작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레비고비의 도미니크 레비 대표는 “유현이 디렉터가 갤러리에 합류하게 되어 매우 기대가 크다”라고 전하며 “20세기 현대미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을 지닌 유 디렉터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는 물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 유 디렉터는 앞으로 갤러리와 해외 컬렉터 및 기관 사이 관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모든 한국 관련 업무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유현이 디렉터 역시 “레비고비 갤러리가 빠른 성장과 확장을 이어나가는 이 주요한 시기에 갤러리에 합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큰 영광이고 기대가 크다”라고 하며 “레비고비는 최상의 수준 높은 작품과 전문성을 갖춘 갤러리로서 내 자신이 갤러리스트로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갤러리의 독보적인 작가 및 전시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의 컬렉터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고의 미술컬렉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작가 및 작가재단과 활발히 협업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의 미술을 더욱더 폭넓은 관객층에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갤러리의 중요한 전환기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레비고비의 눈부신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유현이 디렉터 bona@levygorvy.com , +1 212 772 2004.

레비고비 (Lévy Gorvy)

도미니크 레비와 브렛 고비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 갤러리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909 매디슨가에 위치한 뉴욕 갤러리, 메이페어에 위치한 런던 갤러리와 더불어 2017년 중국 상해에 레비고비 사무소를 열었다. 생존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담당자

Marta de Movellan, Director of Communications, marta@levygorvy.com

###